

‘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범 선 규*

Relevancy between Aliases of Eight Provinces and Topographical Features during the Chosun Dynasty

Seon-Gyu Beom*

요약 :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행정명칭 이외에 각 도(道) 또는 일부지방의 별칭이 오늘날 뿐 만 아니라 지방 행정제도로 도제(道制)가 확고하게 시행되었던 조선시대에도 널리 통용되었다. 별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의 8도(정확하게는 경기도와 7도)를 대신하는 기호·관동·호서·해서·호남·영남·관서·관북과 강원도의 동부와 서부를 지칭하는 영동·영서이다. 이 별칭들의 유래는 거의 전부 지형을 비롯한 자연지리적 요소에 그 기준을 두고 있어, 도회지명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공식적인 행정도명과 비교된다.

별칭 중에는 13~14세기의 문헌에 등장하는 것도 있으며, 15세기 후반부터는 8도의 별칭 모두가 널리 통용된 것 같다. 별칭이 길게는 700년이 넘게, 짧은 것도 50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지리적으로는 공식적인 행정지명에 못지않은 역할을 해온 것이다. 오늘날 조선 8도와 일부 지방의 별칭은 그곳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은연중에 지리적인 '지역구분'의 단위로 받아들여질 만큼 그 의미가 중요해졌다.

각 도의 별칭은 공식적인 행정도명(行政道名)과는 달리 그 유래나 의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헌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지리학계와 일반인들에게 흔히 소개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관북·관서·관동의 '관(關)'과 영남·영동·영서의 '영(嶺)'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고갯길 한두 개만 지칭한다고 보기보다는 각각 접경지대(변경지대), 군사상의 요충지가 많은 지방과 소백산맥·태백산맥을 의미하는 면도 있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호남·호서·기호의 '호(湖)'는 금강과 의림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海西)는 경기만의 서쪽이라는 의미와 함께 해주와 서하(풍천)의 머릿글자를 따라 정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주요어 : 조선 8도, 지방별칭, 관(關), 령(嶺), 호(湖), 자연지리적 요소

Abstract : In Korea, aside from their official administrative names, aliases of each province or some regions are widely used not only today but also during the Joseon period when the provincial system as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as firmly implemented. Of aliases, the most representative were *Giho*, *Gwandong*, *Hoseo*, *Haeseo*, *Honam*, *Yaeongnam*, *Gwanseo*, and *Gwanbuk* representing the eight provinces (precisely, *Gyeonggi* and seven provinces) of Chosun Dynasty, as well as *Yeongdong* and *Yeongseo* that represent the east and the west of *Gangwon-do*. These aliases are mostly based on topographical features and physiographical elements, and compared to the official names of eight provinces which depended solely on city names. Of aliases, some appeared in literature during 13-14th centuries, and all provincial aliases seem to have been widely used after the late 15th century. Aliases continued to be used for 500 to over 700 years. Aliases of eight provinces, geographically, played not lesser role than their official names. Aliases of the eight provinces and regions during the Chosun Dynasty that have been handed down are considered as holding their places'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and have become important enough to be accepted as a unit of geographical regional division.

The origin and meaning of aliases of each province have been partially disclosed to the geographical circle and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details should be reviewed. First of all, *Gwan* (關) in *Gwanbuk*, *Gwanseo* and *Gwandong*, as well as *Yeong* (嶺) in *Yeongnam*, *Yeongdong* and *Yeongseo*, are each considered as meaning *Sobaek* Mountain Range and *Taebaek* Mountain Range with many borderline areas (borders) and military strategic hubs. Also, *Ho* (湖) in *Honam*, *Hoseo*, and *Giho*, are considered as based on the *Geum* River and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시간강사(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bsg205@hanmail.net

Eurimji, and *Haeseo* are considered as meaning the west of the *Gyeonggi* Bay, and having relevancy with the first letters of *Haegu* and *Seoha* (*Pungcheon*).

Key Words: Eight Provinces of the Chosun Dynasty, aliases of provinces, *Gwan*(關), *Yeong*(嶺), *Ho*(湖), geographical elements.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행정명칭 이외에 각 지방별칭이¹⁾ 오늘날 뿐 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통용되었다. 지방별칭은 거의 전부가 수 백 년 전부터 사용되었으며, 이른 것은 14세기 말의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방행정제도로써 도제(道制)가 확고하게 시행되었던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인 행정지명인 도명칭 이외에 각 도별로 별칭이 있었고, 이 별칭들은 15세기 후반부터 두루 쓰인 것 같다. 각 지방의 별칭, 특히 ‘조선 8도’(정확하게는 경기도와 7도)의 별칭은 오늘날 해당하는 지방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문화지리적인 ‘지역구분’의 단위로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여지고 있을 만큼 그 의미가 중요해졌다. 지방별칭이 지리적으로는 공식적인 행정지명에 못지않은 역할을 해온 것이다.

각 지방별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시대의 도명(道名)을 대신해온 기호(畿湖)·관동(關東)·호서(湖西)·해서(海西)·호남(湖南)·영남(嶺南)·관서(關西)·관북(關北)과 강원도의 동부와 서부를 지칭하는 영동(嶺東)·영서(嶺西)이다. 각 도별칭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지리학계와 일반인들에게 흔히 소개되는 내용이 있지만, 이 견해와 다른 주장도 없지는 않다(권혁재, 2003, 14-15).²⁾ 이것은 이미 ‘정실화’되어 있다시피 하는 지방별칭의 유래와 의미에 관한 기왕의 내용 중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공식적인 행정도명과는 달리 지방별칭의 기원이나 의미, 사용 시기 등을 문헌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본연구의 목적은 ‘조선 8도(朝鮮八道)’의 별칭을 중심으로, 별칭 각각의 유래와 의미, 사용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이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지방별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리적 의미에 비하여 이에 관한 지리학계

의 구체적인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다. 그 결과 조선 8도 등의 지방별칭과 관련된 정보가 지리학계와 일반인에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믿어진다. 별칭의 유래와 의미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서는 이것과 지형의 관련성에 특히 관심을 두었다. 본연구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지명총람」 그리고 12세기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생존했던 인물들의 개인 문집류에 대한 문헌조사 중심으로 수행하였다.³⁾

2. 조선시대의 8도 관련 지방별칭

‘조선 8도’의 공식적인 행정명칭 중에는 고려시대에 이미 사용되기 시작한 경기·전라도·충청도·경상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4도의 명칭도 15세기 직전후로 확고해졌다(범선규, 2002a).⁴⁾ 이후 8도제(八道制)는 조선시대를 일관한 지방구획의 철안(鐵案)이었으며, 경기를 제외한 여타의 7도에는 제각기 아호(雅號)인 이칭(異稱)을 갖게 되었다(최남선, 1937). 조선시대의 이칭, 즉 별칭 중에 일부는 고려시대의 정사기록에도 등장 하지만(국역고려사절요 I, 127, 261)⁵⁾, 지방별칭으로 널리 사용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이다. 조선 8도와 관련된 지방별칭들은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와 통용되던 시기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표 1).

표 1은 조선의 태조부터 철종대에 이르는 실록을 국역하여 제작한 CD-ROM(서울시스템, 1998)과 해당 「조선왕조실록」의 국역본(색인)을 토대로 조선 8도와 관련된 지방별칭을 검색하여 얻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경기도와 7도를 대신했던 각각의 별칭은 서로 다른 시기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강원도와 관련된 ‘관동’과 ‘영동’ ‘영서’는 각각 태조와 세종, 황해도의 이칭인 ‘해

표 1. 「조선왕조실록」의 8도 관련지방별칭

별칭	총 횟수	태조 (1392~ 1398)	세종 (1418~ 1450)	세조 (1455~ 1468)	성종 (1469~ 1494)	중종 (1506~ 1544)	명종 15452~ 1567)	선조 (1567~ 1608)	인조 (1623~ 1649)	숙종 (1674~ 1720)	정조 (1776~ 1800)	순조 (1800~ 1834)	철종 (1849~ 1863)	최초기록 즉위년-월. 일
畿湖	95	-	-	-	-	-	-	-	○	◎	●	◎	-	인조 5- 4. 1
關西	1,110	-	○	○	◎	◎	◎	●	●	●	●	●	◎	세종 4- 3.19
關北	205	-	-	-	○	○	○	◎	○	●	●	●	◎	성종 22-12.14
關東	442	○	○	○	-	○	○	●	◎	●	●	●	◎	태조 총서
嶺東	283	-	●	◎	◎	◎	○	●	●	●	●	○	-	세종 2-10.24
嶺西	130	-	●	◎	◎	◎	○	◎	◎	●	●	-	-	세종 4- 8.25
嶺南	1,065	-	○	○	◎	◎	●	●	●	●	●	●	●	세종 32- 1.15
海西	910	-	-	-	◎	○	○	●	●	●	●	●	◎	태종 6- 4.19
湖南	896	-	○	○	◎	◎	●	●	●	●	●	●	◎	세종 29-11.16
湖西	947	-	-	-	-	○	○	●	●	●	○	●	○	중종 15- 4.17

범례: -: 0회, ○: 1~5회, ◎: 6~10회, ◎: 11~20회, ●: 21~50회, ●: 51회 이상. 총 횟수는 전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횟수인데 집계상에 실수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자료: CD-ROM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실록의 국역본(색인).

서'는 태종 때의 기록에 처음 보이고, 각각 평안도·경상도·전라도의 별칭인 '관서'·'영남'·'호남'은 세종대, 함경도를 지칭한 '관북'은 성종대, 충청도의 별칭인 '호서'는 중종대의 기록에 등장한다. 반면에 경기도와 충청도를 아우르는 '기호'는 가장 늦은 「인조실록」에 올라 있다.

지방별칭의 기록 횟수는 대체로 조선시대의 전기보다는 후기로 오면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세종~세조대에는 기록이 드물게 나타나다가 성종~명종대까지는 대체로 집중하였고, 선조~인조대를 거치면서 지방별칭의 기록은 대단히 빈번해졌다. 선조~인조대 이후 지방별칭의 기록이 급증한 이유는 국가 존폐를 염려할 정도의 큰 외침(外侵)을 두 차례나 겪었던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별칭은 선조대 이후 통용하여 정착된 것으로 믿어진다.

왜국(倭國)과 청국(淸國)의 침입으로 시작된 전란은 각각 7년과 10년에 걸쳐 '조선 8도'를 유린하였다. 긴박한 전시상황에서는 군사전략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각종 문서에 침략국에 까지 널리 알려져 있을 공식적인 행정도명 보다는 별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은 당시 관직명에도 지방별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전란은 각 지방간

의 인구이동을 유발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의 인구유동은 결과적으로 각 지방과 관련된 지리정보의 대량 유통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상업 활동이 점차 활발하게 되었을 것이다. 당시 인구유동과 상업 활동은 원칙적으로는 통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지명의 사용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지방별칭으로 정착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조선 8도와 관련된 주요 별칭의 기록빈도 추세를 달리 강원도의 동부와 서부를 지칭했던 영동과 영서는 세종대 이후 정조대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19세기 이후에는 그 빈도가 극히 낮아지는 점이 주목된다. '영동'과 '영서'는 둘 다 세종 즉위 초의 실록에 처음 보인다. 그런데 영동·영서는 등장 초기부터 그 기록횟수가 다른 7도의 별칭보다 많았고, 그 기록빈도도 비슷하게 유지되었다(표 1 참조). 영동과 영서의 기록빈도가 보여준 이러한 추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강원도 지방이 세종대 이후 확실하게 중앙의 통제 속에 들어왔으며, 왕의 강무(講武)와 사냥터로 영서지방이 자주 이용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위에서 언급한 지방별칭의 사용추세에 관한 언급은 전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만을 자료로

표 2. 개인문집류 속의 지방별칭

문집명	저자(생몰연대)	지방별칭
동국이상국집	이규보(李奎報: 1167~1241)	관동, 영남
익재집	이제현(李齊賢: 1287~1367)	관동
경렬정집	탁광무(卓光茂: 1330~1408)	호남
삼봉집	정도전(鄭道傳: ? ~1398)	영남, 영동, 영서
양촌집	권 근(權 近: 1352~1409)	관동, 영남
불우헌집	정극인(丁克仁: 1401~1481)	영남, 호남
서애집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영남, 영동, 영서, 호남, 호서
성소부부고	허 균(許筠: 1569~1618)	관동, 관북, 관서, 영남, 영동, 영서, 호남, 호서
상촌집	신 흠(申欽: 1566~1628)	관동, 관북, 관서, 영남, 영동, 영서, 해서, 호남, 호서
한수재집	권상하(權尙夏: 1641~1721)	기호, 관동, 관북, 관서, 영남, 호남, 호서, 해서
담헌서	홍대용(洪大容: 1731~1783)	관동, 영남, 호남, 호서
면암집	최익현(崔益鉉: 1833~1906)	관동, 영남, 영동, 해서, 호남, 호서

자료: 민족문화추진회 간행의 각 문집 국역본(색인) 등.

한 것이다. 때문에 이것을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지방별칭의 사용실태로 단정 짓기에는 다소 망설여 지는 면도 있다. 정사사료인 「조선왕조실록」이 사회 모든 계층의 전반적인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지명(실사 그것이 별칭이라고 하더라도)의 사용과 관련된 기록은 사회계층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축소 또는 왜곡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정사사료를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것은 표 2에 제시된 12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까지 생존했던 사대부들의 개인문집류 속에 등장하는 지방별칭의 종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문집은 개인의 모든 저작물을 망라한 전집과 같은 것으로 저자의 지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을 망라하는 생활 체험 자료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표 2에 올라 있는 문집의 저자들은 당대를 대표하거나 뛰어난 식견의 소유자로 평가 받는 사대부의 일원이다. 이들의 문집은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거의 전부 국역본이 출간되었다.

표 2에 의하면,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살았던 인물들이 남긴 개인문집류에는 관동·영남·영동·영서·호남 등의 지방별칭이 보인다. 그런데 「고려사」, 「고려사절요」나 같은 시기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그 별칭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 생존했던 인물들의 문집류에는 「조

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지방별칭이 거의 전부 나타나 있다. 특히 16~17세기에 살았던 인물의 문집류에는 오늘날 사용되는 지방별칭이 모두 올라와서, 이 시기에 들어서 사대부들 사이에 지방별칭의 사용이 보편화 된 것으로 믿어진다.

개인문집류 속의 지방별칭은 대부분 시문(詩文)에 포함되어 있는 점도 주목을 끈다.⁶⁾ 왜냐하면 한시문(漢詩文)은 사대부들에게 기본적인 소양에 속한데다가 시와 산문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사적(私的)인 감흥·감정을 담아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시(漢詩)는 중국에서 시작된 문학 장르로, 조선의 사대부들의 문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지명들이 시문에서 묘사될 때는 공식적인 행정명칭 보다는 별칭이나 축약된 형태로 사용된 예가 적지 않다.

3. '關'자가 포함된 지방별칭

조선8도의 별칭 가운데 '관(關)'자가 핵심어인 것으로는 관동(關東)·관북(關北)·관서(關西)가 있다. 이들은 각각 강원도·함경도·평안도의 별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관동은 강원도의 영동지방을 지칭기도 한다.

이 별칭을 정한 기준으로 믿어지는 '관'이 어디인가 하는 점이 우선 궁금해진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은 강원도 회양과 함경남도 안변 사이의 철령(鐵嶺, 685m)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고려의 성종대에 개경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황해도를 일부 포함한 지방에 설정했던 관내도(關內道)를 그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권혁재, 2003, 14). 이 두 가지 주장 외에도 '관'을 대관령으로 보는 기록(국역연려실기술 XI, 1977, 169), 막연하게 '서울을 지키는 관문'으로 보는 견해(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2) 등도 있다.

이러한 여러 주장의 검토를 위해서는 '관'의 자의(字義)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관'은 문호(門戶)를 가로질러 잠근 막대기, 국경 또는 요해지(要害地)에 설치하여 여행객이나 화물의 출입을 단속하는 문, 요새지(要塞地) 등의 의미를 지닌 문자이다(諸橋轍次, 1984, 卷十一, 769-770). 한·중·일의 문헌사료에서는 관(關)이 관방(關防), 관보(關堡) 등의 표현으로도 등장하는데 주로 군사상의 요충지를 지칭한 것이다. 군사상의 요충지는 지형상 험처(險處)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에서는 군사상의 요충지로 이름이 높은 곳의 하나인 낙양(洛陽)과 서안(西安) 사이의 함곡관(函谷關) 자체를 '관'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함곡관은 중국 동부의 화북평원에서 서부의 고원지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한 난공불락의 험처이다. 이 관은 본래 하남성 영보현에 있던 것을 한(漢)나라의 무제(武帝) 때 서쪽의 신안현으로 옮겨 설치했다. 함곡관은 고대 이래 군사상의 요해처였다. 漢나라(BC 206~AD 24)때 이 관을 기준으로 동쪽의 산둥성(山東省)·하남성(河南省)일대는 관동(關東)(또는 관좌: 關左), 서쪽의 감숙성(甘肅省) 일대는 관서(關西)(또는 관우: 關右)로, 인근의 험서성은 관내(關內)로 불렸다. 唐나라의 태종(627~649)대에 장안(長安)(오늘날의 西安)을 비롯한 험서성(陝西省), 감숙성(甘肅省), 영하성(寧夏省) 일대에는 관내도(關內道)를 설치하였다(諸橋轍次, 1984, 卷十一, 770-775).

일본에서도 지방별칭으로 관동(關東, 간토)이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관서(關西, 간사이)도 사용되고 있다. 관동지방의 중심은 도쿄(東京)이며, 관서지방에는 교토(京都)와 오사카(大阪)가 있다. 관동과 관서지방의 구분은 호사카산(逢坂山) 또는 후

지산(富士山, 3776m)인근의 하코네산(箱根山, 1438m)을 기준으로 했으며, 관동은 판동(坂東)이라고도 했다. 이 두 지방은 일본역사에서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어온 대표적인 곳으로 군사적 충돌이 적지 않았다. 특히 12세기와 16세기에는 일본역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전쟁이 두 지방의 세력간에 있었다. 그런데 도쿄와 교토는 직선거리로 약 400km나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는 중부지방(中部地方)으로 불리운다. 이 산지에는 북동-남서방향의 여러 산맥들이 있으며 3000m가 넘는 산봉우리가 즐비하다. 중부지방은 다시 북부 동해연안의 북륙(北陸), 중부산지(中部山地), 남부 태평양연안의 동해도(東海道)로 나누기도 한다. 동해도의 중심은 나고야(名古屋)이며, 인근의 기후(岐阜)에는 16세기에 강력하고 요새화된 군사령부가 있었다. 일본의 관동·관서지방의 구분은 '중부지방'으로 불리우는 산지를 경계로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서(關西)는 고려의 문종대(1046~1083)(국역고려사절요 I, 1976, 261), 관동(關東)은 이규보(李奎報, 1167~1241), 이제현(李齊賢, 1287~1367) 등의 개인문집에, 관북(關北)은 15세기의 「성종실록」에서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조). 관내도(關內道)는 고려의 성종대(981~997)에 공식적인 행정도명의 하나로 처음 나타나는데 당시 양주(楊州, 서울)·광주(廣州)·황주(黃州)·해주(海州)를 관할했다. 이 도명은 잠시 사용되다가 곧 소멸되었다(이홍직, 1984, 151). 이 '관내도'라는 명칭은 당(唐)의 '관내도'를 원용한 것으로 믿어진다. 고려시대에 '관내도'라는 도명을 정할 때, 당나라의 관내도의 경우처럼 지형조건상 군사 요해처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곳을 근거로 했는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동·관북·관서의 '관'은 구체적인 관방처 또는 접경지대를 고려한 별칭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통설처럼 철령(또는 철령관), 한 곳만을 기준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면이 있다. 그것은 철령의 동쪽은 강원도이고, 서쪽은 평안도라고 보는 점이 두 도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최남선, 1937, 196). 더구나 관서·관북이라는 별칭은 조선의 성종대 이후에 함께 문헌에 올라오고 선조대(1567~1608) 이후의 실록에서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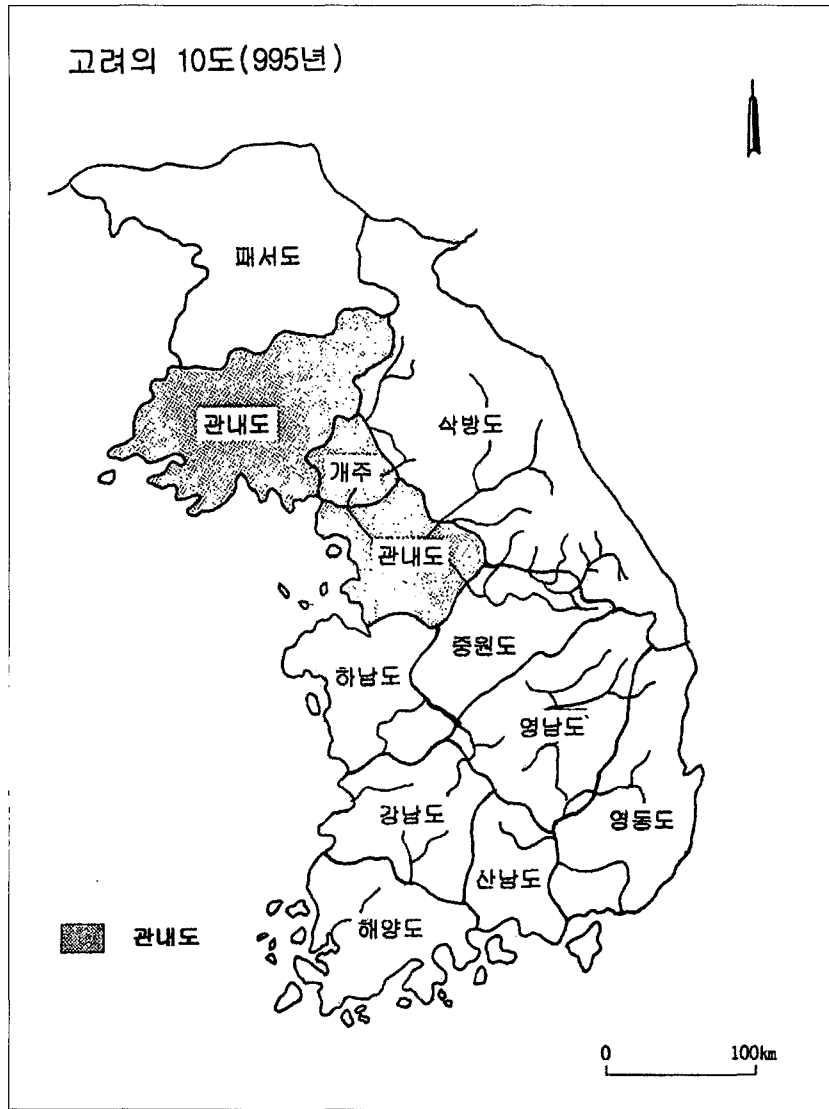


그림 1. 고려의 십도(995년)

우리나라의 행정제도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도(道)이다. 이 도제는 지방행정제도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도명의 등장은 의미 있는 것이다(자료: 내무부, 1976; 1982/ 행정자치부, 2001 등).

록의 빈도가 안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때는 이미 국방의 요충지로서 '철령'은 그 지위가 크게 퇴색된 뒤였다.

물론 철령과 그 북부지방은 고려왕조가 귀속문제로 원(元)·명(明)나라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군사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 곳을 중국의 함곡관에 비견하는 것으로 보고 관서·관동이라는 별칭을 사용했을 가

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관북과 관서의 '관'은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국경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국토를 수복해 가는 과정에서 거란·여진·원 등 중국 동북 지방의 세력들과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었던 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기간에 북쪽의 국경은 평양-안변에서 안주-영흥, 의주-화주, 초산-길주, 압록강-두만강 선으로 전진해 갔다. 이렇게 국

경이 북진하면서 수시로 바뀌었을 접경지대에는 많은 관방처가 부각되었을 것이다. 관서·관북의 관은 이러한 여러 관을 대변했을 수도 있다. 다만, '관동(關東)'의 경우는 관서·관북과 달리 고려말 이후 각종 문헌에 꾸준히 용례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관내도의 동쪽지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그림 1).

또 한편으로는 관서·관북이 국경지대 자체가 관방이 많이 있는 서쪽·북쪽지방을 의미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평안도·황해도·강원도 북부와 동한만을 갈라놓고 있는 산맥은 고려 또는 조선왕조와 북방세력과의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어온 대표적인 변경지대였던 곳이었다. 때문에 이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교통·통신망의 유지는 매우 중요했다. 그 결과 고려시대의 영역 가운데 역로(驛路)가 가장 잘 정비된 지방은 오늘날의 평안도(北界)와 동한만 일대의 동계(東界)지방이었고 이 곳에는 일찍부터 진(鎭)과 방어사주(防禦使州)를 설치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중앙 정부는 관서·관북방면의 역로조직과 역로체제에 관심이 높았다(조병로, 2002, 134-135, 194-197).

조선시대의 관방에 대해서는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상세하다. 이 책 군정편(軍政篇)의 관방(關防)조에는 19세기 초의 황해도·평안도·함경도·강원도의 관방 현황도 소개되어 있다. 19세기 초에 황해도에는 읍성과 산성이 19개소 있었고, 영로(嶺路)는 45개소로 주로 '~령(嶺)' 또는 '~현(峴)'으로 불렸다. 평안도-황해도-한양을 연결하는 영로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요해처는 황주의 동선관(동선령)이었으며, 이 외에도 산리령(서흥-상원), 검협령(곡산-안변), 건물치령(곡산-이천) 등이 관서-관북을 잇는 관방으로 중요했다. 평안도에는 50여 개소의 읍성 또는 산성과, 110여 개가 넘는 영로가 있었다. 영로는 '~령(嶺)', '~현(峴)'과 함께 '~애구(隘口)', '~장령(牆嶺)' 등으로 불리었으며, 특히 하삼도(下三道)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보(堡)와 진(鎭)이 약 10개소 씩 있었다. 그리고 함경도에는 산성과 읍성이 약 30개소였으며, 영로는 110여 개소가 있었는데 '~령(嶺)', '~현(峴)'으로 불렸던 곳이 많았다. 함관령(함흥~홍원)과 철령(안변~회양)이 널리 알려진 요해처이다.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영로에는 '~현(峴)', '~치

(峙)'가 많다. 현과 치에는 모두 영에 못 미치는 '낮은 고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함흥-영흥-안변으로 이어지는 약 150km 구간의 서쪽 산지는 우리나라에서 영로가 가장 밀집된 곳이다. 이 구간의 남부에서는 한반도의 등뼈에 비유되는 낭림산맥이 끝나고 태백산맥이 시작된다. 소축척지대에서는 두 산맥사이의 안부(鞍部)가 낮은 지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발고도가 1,200~1,600m에 이르는 산지가 연달고 영로가 약 20개에 이르는 고산준령지대이다. 이 곳의 영로는 동한만의 충적평야지대와 낭림산맥이나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의 평안도·황해도·강원도를 연결한다. 동한만 일대는 함흥평야, 영흥평야 등이 펼쳐진 우리나라 동해안 최대의 충적평야지대이다.

이곳의 영로들은 모두 관방의 하나로 분류되었는데, 철령을 비롯하여 마유령·거차령·애전령·장평령·조령·월항령·기진령·박달령·예운령·구전령·거유령·봉수령·판기령·돈합령·마식령 등이 그것이다. 철령은 약 20개의 영로 중에 하나일 뿐이다. 더구나 접경지대를 압록강과 두만강으로까지 밀어 올린 15세기에는 함경도의 관방 중에 마천령(이성), 마운령(단천), 함관령(함흥)이 함경도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 가장 중요한 관방이었고, 접경지대에서 떨어진 대문령(홍원), 고관문(정평), 용흥강(영흥), 철관(덕원), 철령(안변)은 그 다음에 속한다는 양성지(梁誠之)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국역 만기요람 II, 407-408). 철령의 역할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반면에 철령 북쪽의 함경도지방에는 보(堡)와 진(鎭)이 각각 22개소와 8개소가 있어 이 곳이 평안도와 함께 대표적인 관방지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4. '嶺'자가 포함된 지방별칭

지방별칭 가운데 '영(嶺)'자가 핵심어로 포함된 것으로 영남(嶺南), 영동(嶺東), 영서(嶺西)가 있다. 이들은 각각 경상도, 강원도 동부, 강원도 서부의 이칭(異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조선왕조실록」과 개인문집류에는 '영북(嶺北)'도 보이는데, 이것은 함경도를 달리 부르는 표현이었던 것 같다(성종실록 52권 6년 2

월 8일: 국역 상촌집1, 1997, 428). '영북'은 오늘날에도 속초·양양 등지의 일부 주민사이에서 강릉의 북쪽지방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들 별칭에서 '영(嶺)'이 지리적으로 어느 곳을 지칭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영남'의 그것은 조령과 죽령이고, '영동, '영서'의 그것은 대관령을 뜻한다고 흔히 소개된다.

그러나 '영'과 관련된 이러한 일반론과는 어긋나 있는 견해도 있다. 우선 '영남(嶺南)'의 '영(嶺)'을 단순히 조령·죽령으로만 보기보다는 (국역연려실기술 XI, 1977, 169; 최남선, 1937), 조령·추풍령·죽령으로 보거나(이흥직, 1984, 930) 더 나아가서 죽령·조령·이화령·추풍령 등으로 설정하기도 한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2, 346). 그리고 영동(嶺東)·영서(嶺西)의 '영(嶺)'도 '고갯길(嶺路)'로 보는 것은 '영남'의 그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것이 어느 영로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관령 한 곳으로 보는 견해(국역 연려실기술 XI, 1977)와 함께 대관령·대간령·온정령·삼운령·판막령 등 태백산맥에 놓인 다수의 고개로 설정한 의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2, 346)이 있다. 그리고 영(嶺)을 단순히 고갯길이 아닌 영동·영서를 구분하는 태백산맥 자체로 보는 주장도 있다(최남선, 1937; 뿌리깊은나무, 1987, 20-22).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영(嶺)'자의 자의(字義)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辭典)에 의하면 '영'은 도로가 놓인 고개라는 뜻과 함께 연산(連山) 또는 산맥(山脈)의 의미로도 사용한 고문헌이 있는 것 같다. 중국의 한(漢)나라 때에는 중국 남부의 광둥성(廣東省)·광서성(廣西省) 등과 북쪽의 화중지방(華中地方)을 가르는 산맥에 놓인 5령(五嶺)을 경계로 하여 영남(嶺南)·영북(嶺北)으로 구분했으며, 영동(嶺東)은 이와는 무관한 하남성(河南省)에 있었던 것 같다(諸橋較次, 卷四, 1984). 그리고 당(唐)나라 때에는 영남도(嶺南道)에 속했던 이 5령 자체를 지칭하기도 했다⁷⁾.

우리나라 문헌에서 '영남(嶺南)'은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개인문집류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정사사료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실록」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 같다(표 1과 2 참조).

그러나 고려의 성종대인 10세기 말에 10도제를

시행할 때 이미 영남도(嶺南道)가 있었으며 상주가 중심이었다. 영동도는 오늘날의 경주·김해일대였으며, 산남도는 지리산일대로 진주가 중심이었다. 당시에는 오늘날에 '영남'으로 불리는 경상남북도가 영남도와 영동도·산남도의 3도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다(그림 1 참조). 물론 고려의 10도는 실제적인 행정구역으로 역할을 거의 못했지만 '영남'과 '영동'이란 지명의 등장은 의미가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상주중심의 영남도는 죽령·조령·이화령·추풍령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의 남부와 낙동강의 상류지역이었던 것 같으며, 영동도는 경북 동해안의 태백산맥 즉 울진군 평해와 영덕군 병곡 사이의 칠보산(810m)·맹동산(808m)과 청송의 주왕산(721m)·보현산(1,124m), 대구의 팔공산(1,192m)·비슬산(1,084m), 창녕의 천왕산(619m), 창원의 천주산(640m), 마산의 광려산(720m)을 잇는 산맥의 동쪽지방에 설정된 행정구역이었던 것 같다. 물론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각도의 경계는 시행 초기부터 명확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고려 성종대인 10세기 말에 소백산맥에서 낙동강의 상류에 설정되었던 행정도의 명칭이었던 '영남'이 13, 4세기경부터는 경상도 전체를 지칭하는 별칭으로도 일부 사대부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이상국집」, 「삼봉집」 등에서 그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표 2 참조). 이후 '영남'이라는 지방별칭은 조선시대의 세종·세조연간을 지나면서 점차 사용이 늘다가 15세기 후반 성종대에 들어서서는 경상도를 대신하는 별칭으로 정착된 것 같다(표 1 참조). 15~16세기에는 다른 도의 별칭들도 통용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문헌에 보이는 '영남'에서 '嶺'의 의미는 단순히 고갯길 1~2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덕의 병곡과 울진의 평해 사이의 칠보산(810m)에서 북쪽으로 백암산(1,004m), 통고산(1,067m), 태백산(1,567m)에 이르는 경북 동북부의 태백산맥과 태백산에서 속리산(1058m)·덕유산(1614m)·지리산(1,915m)까지 이어지는 소백산맥 자체를 의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정은 19세기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그 자매지도인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얻게 된다.

두 지도에 의하면 당시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오르는 주요 역로가 경유하는 고개로 죽령(풍기-단양), 조령(문경-충주), 추풍령(김천-황간), 팔랑치(함양-운봉)가 있으며, 이외에도 육십치 등의 고개가 표기되어 있는 등 여러 영로(嶺路)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조령과 죽령이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맞섰던 시기에는 접경지대의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지만, 고려와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는 관방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전대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던 것 같다.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은 경상도와 전라도·충청도의 경계에서는 구례의 두치진(頭馳津), 하양의 팔랑현(八良峴), 안음의 육십현(六十峴), 지례의 우두현(牛頭峴), 금산의 추풍령(秋風嶺), 문경의 조령(鳥嶺), 선산의 낙동강(洛東江), 풍기의 죽령(竹嶺) 등이 산천의 험조(險阻)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18세기 편찬된 「관방집록(關防集錄)」에는 경상도의 영로 중에 조령·죽령·화령·추풍령·괘방령을 청석동(개성)·마운령·마천령·철령·대관령·추지령·팔랑령·만마동·대로령·소로령·청석동(황해도)·동선령 등과 같은 요처로 올라 있다. 이러한 문헌 기록들은 조령과 죽령이 갖는 관방 영로상의 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국역만기요람 Ⅱ, 1971, 399와 438). '영남'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세종실록」에 최초로 보이지만 성종(1469-1494)대 이후 정착한 별칭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영(嶺)'을 단순한 고갯길(嶺路)로 이해하기보다 연속된 산체, 즉 산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은 영동(嶺東)과 영서(嶺西)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영동'과 '영서'도 여말선초(麗末鮮初)를 살았던 인물들의 개인문집에서 드문드문 보이다가 조선의 세종대 이후 왕조실록과 개인문집류에서 다른 지방별칭보다 자주 눈에 띈다. 특히 다른 지방별칭과는 달리 세종대 이후 종종 대까지 그 사용빈도가 가장 많이 관심을 끄는데, 이것은 '영동'과 '영서'가 지방별칭 중에서 가장 먼저 정착된 지명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강원도의 동부와 서부의 별칭인 '영동'과 '영서'의 '영'도 영남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관령(大關嶺)'이나 또는 고갯길 몇 개를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기보다는 태백산맥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

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19세기의 「대동여지도」, 「대동여지전도」와 「만기요람」에 의하면 당시 한양에서 강원도의 동해안인 영동지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육로는 북쪽에서부터 철령(회양-안변), 추지령(회양-통천), 연수령(인제-원암), 대관령(횡계-강릉), 백복령(정선-삼척)을 넘었고, 이외에도 회전령(서화-고성), 진부령(서화-간성), 구룡령(기린-양양), 선유령(간성-인제), 미시령(간성-인제), 삼시령(고성-인제), 이치(평창-강릉), 유헌(황지-삼척) 등의 고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한 고갯길 1~2개가 영동지방과의 교통로로 유일했거나 절대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그림 2). 더구나 울진과 평해는 백복령을 넘어 삼척을 경유하는 길이 주 접근로였던 것 같다. 영동지방은 본래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의 흡곡(歙谷)에서부터 통천(通川), 고성(高城), 간성(杆城), 양양(襄陽), 강릉(江陵), 삼척(三陟), 울진(蔚珍)을 지나 평해(平海)에 이르는 9개 군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의 통칭은 '영동 9읍'이었다. 연속된 '9읍'은 남북으로 그 길이가 300km안팎이고 폭은 강릉을 제외하면 대체로 20~30km에 불과한 좁고 긴 형상이었다. 울진과 평해는 1963년에 경북으로 이관되었다(범선규, 2002b).

뿐만 아니라 대관령은 1906년까지도 강릉을 크게 동부의 해안지역과 중·서부의 고원지역으로 구분하는 위치에 있었다. 당시 강릉군의 관할구역은 정선군 임계·도암면, 평창군의 진부·봉평·대화면과 홍천군 내면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다(내무부, 1982, 269). 강릉의 서쪽 끝은 원주의 치악산이 가까운 백덕산과 청태산을 연결하는 선에 다다랐다. 이것은 동해안에서 직선으로 70km 떨어진 곳이다. 대관령은 해안에서 20km 거리에 있다. 대관령은 강릉 관내에서도 동쪽에 매우 치우쳐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강릉을 영동지방을 대표하는 거읍으로 소개하면서, 동시에 영동지방을 대관령의 동쪽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충되는 느낌이 든다.

'대관령'이란 지명이 실록에 처음 보이는 것은 「세조실록」인데, 길주(吉州)로 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힘으로 마천령, 마운령, 함관령, 철령 등과 함께 대관령을 지칭하고 있다(세조실록 43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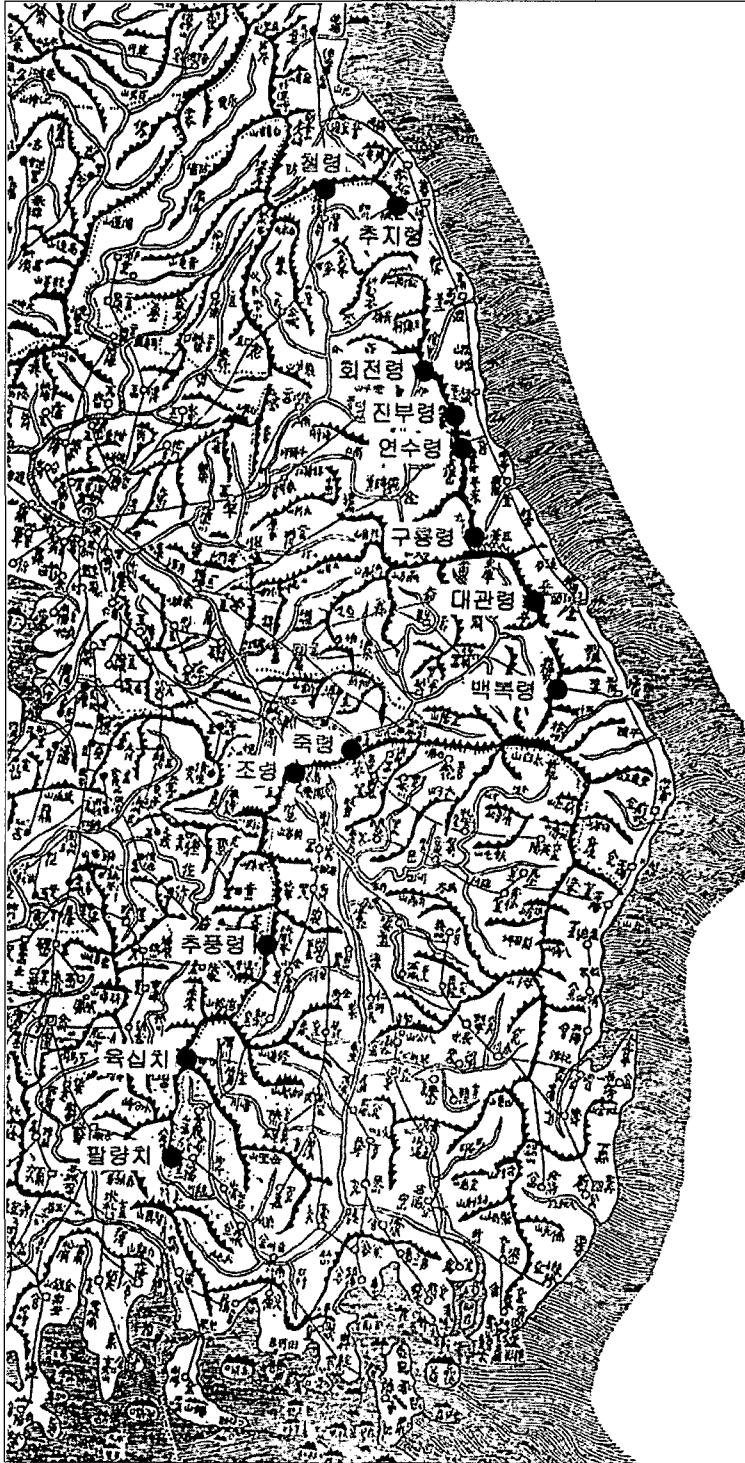


그림 2. 「대동여지전도」의 한반도 중·남동부(1861년)

「대동여지도」의 자매지도로 알려진 전도이다. 오늘날 태백산맥·소백산맥으로 불리는 산체가 뚜렷하다. 이것을 '영(嶺)'으로 표현하기도 했던 것 같다.

13년 7월 17일). 그러나 대관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최초의 기록은 「태종실록」에 대령산(大嶺山)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태종실록 20권 10년 7월 1일). 이후 '대관령'은 「선조실록」에 2회, 「중종실록」에 1회, 「숙종실록」과 「영조실록」에 각각 2회, 「정조실록」에 7회, 「순조실록」에 1회가 실려 있다(서울시스템, 1998).

한편 대관령은 회귀하지만 '관령(關嶺)'으로도 불렸다. '관령'은 선조부터 철종대까지의 실록에 모두 5회가 보인다. 대관령, 관령 등의 지명은 대체로 선조대 이후에 사용된 것 같다.

'대관령'이나 '관령'은 '영동'과 '영서'라는 별칭이 이미 정착한 세종대보다 시간적으로 100년 이상 뒤져 통용된 지명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실록에는 '대령(大嶺)'이라는 표현도 보이는데 태조실록~철종실록까지 약 40회에 이르지만 5건만 대관령을 지칭하고 나머지는 모두 산맥(山脈) 또는 다른 지방의 영로(嶺路)를 의미하고 있다. 특히 「세종실록」의 지리지(153권~155권)에는 강원도의 강릉대도호부, 평안도의 삼화현, 함길도의 정평도호부와 강원도호부의 기록에 모두 '대령'의 표현이 보이는데, 이것은 '큰 고갯길'의 의미를 지닌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대령'이 산맥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5~6회가 보인다. 예를 들면, 「세조실록」에는 "...이시에는 앞은 펴박하고 뒤는 절단되어, 동쪽은 큰 바다로 막혀있고 서쪽은 대령으로 막았으니 이는 가마 속의 물고기이다" (세조실록 42권 13년 6월 8일) 라는 기사가 올라있고, 「성종실록」의 "강원도는 다른 도와 달라서 서쪽으로는 대령(大嶺)에 의거하고 동쪽으로는 창해(滄海)에 그쳤으며, 영서(嶺西)는 서리와 눈이 많고 영동(嶺東)은 바람과 비가 많은데..." (성종실록 207권 18년 9월 11일)라는 기록과 「선조실록」의 "...영동의 9군이 조금 넉넉한 듯하나 대령이 막혀 있어 수운하기가 극히 어렵다. 영서에 있는 것은 모두 피잡곡인데..." (선조실록 160권 36년 3월 20일) 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별칭의 영남·영동·영서에서 영(嶺)이 지칭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영로, 즉 고갯길 1~2개가 아니고, 다수의 영로(嶺路)를 포함했거나 소백산맥 또는 태백

산맥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 '湖' 또는 '海'자가 포함된 지방별칭

지방별칭 가운데 '호(湖)'나 '해(海)'자가 포함된 것으로는 호남(湖南), 호서(湖西), 기호(畿湖)와 해서(海西)가 널리 알려져 있다. 호남은 전라도, 호서는 충청도, 기호는 경기도와 충청도, 해서는 황해도의 별칭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들 별칭에서 '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특히 '호남'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반면에 해서의 '해'의 의미는 별다른 이설이 없이 '서해(경기만)의 서쪽'이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호남(湖南)'이라는 지방별칭은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여러 별칭 중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것 같다. 그동안 제기된 주장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호(湖)'를 제천의 의림지(義林池)로 보는 견해가 있고, 김제의 벽골제(碧骨堤), 금강(錦江), 중국지명의 이식(移植) 등으로 보는 주장과 함께 아예 백제문화의 후계자로서의 의미로 옛 백제 영토 전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있다(박만규·나경수, 1999). 반면 '호서(湖西)'의 '호'는 제천의 의림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인 것 같다. '기호'의 호는 대체로 호서지방으로 보지만, 연구주체에 따라서는 호서와 호남 모두를 포함시키기도 한다(윤사순 외, 1995, 13-28).

그럼, 여러 지방의 별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별개의 의미로 해석되는 '호(湖)'의 자의(字義)부터 검토해보기로 한다. '호(湖)'는 '지(池)나 소(沼)보다는 큰 저수지'의 뜻으로 널리 쓰이지만, 중국의 전한(前漢 BC 206-AD 24)의 역사서인 「한서(漢書)」에서는 강해(江海)·피호(陂湖)·원지(園池)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 것 같다(諸橋轍次, 1984, 卷七, 126). '호(湖)'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예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각종 문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영산강의 사호진 일대는 사호강(沙湖江), 금호강의 금호진 부근은 금호강(琴湖江), 안성천-삼교천 사이의 아산만은 공세호(貢稅湖), 영광 법성포 앞바다는 소서호(小西湖)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국역택리지, 1971, 99-125).

‘호남’의 ‘호’가 김제의 벽골제호(碧骨堤湖)를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로는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의 것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의 실학자이면서 고증학파의 일원이었던 이긍익은 분명한 근거 제시 없이 ‘호서’의 ‘호’도 벽골제호 또는 제천의 의림지호(義林池湖)가 그 기준이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국역연려실기술 XI, 1977, 168). 이긍익의 이러한 주장에 최남선(崔南善, 1890~1957)도 동의하고 있다(최남선, 1937, 195). ‘호남’이라는 지방별칭을 담고 있는 여말선초의 문헌으로는 탁광무(卓光茂)(1330~1408), 조준(趙浚)(1346~1405), 정극인(丁克仁)(1401~1481), 신숙주(申淑舟)(1417~1475), 양성지(梁誠之)(1415~1482) 등의 개인문집류가 언급되고 있다. 이 외에도 14~15세기의 개인문집류에는 적지 않은 횃수의 ‘호남’이 종종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당시에 해당하는 실록의 기록보다 횃수가 많다. 이것으로 14~15세기에는 시문을 즐기던 사대부들 사이에 ‘호남’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라도의 별칭인 ‘호남’의 유래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기록은 지금껏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이에 관한 규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호남’이 등장하기 시작한 여말선초의 ‘벽골제호’의 상태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제시대에 축조한 이후 백제에게 이익을 주어오던 벽골제는 쇠락했다가 고려시대의 현종대(1009~1031)에 보수하고 1143년에 증수를 했으나 끝내 폐기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의 태종대인 1415년에 다시 쌓았으나 곧 허물어 버렸다(세종장현대왕실록지리지 24권, 1972;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IV, 1969, 429-430). 이 같은 사실은 ‘호남’의 ‘호’가 과연 쇠락했거나 ‘허물어 버린’ 벽골제호를 상징했을까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데 충분하다. ‘호남’을 벽골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별칭의 탄생시기와 당시 벽골제의 상태를 관련지어볼 때 신빙성이 낮다는 것이다.

‘호남’의 호를 의림지로 보는 견해는 이병도(李丙巒, 1896~1989)가 강조했던 것이다. 그는 1964년에 의림지를 일종의 ‘호’로 보고 거기를 표준으로 해서 충청도를 호중(湖中) 혹은 호서(湖西), 그 남

쪽인 전라도를 보통 호남이라고 일컬어오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다. 그는 이러한 견해를 갖게 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것은 다 아는 상식’이라고 언급하였다(이병도, 1964, 15). 반면에 호남·호서의 ‘호’를 금강으로 보는 입장은 이 강이 한때 ‘호강(湖江)’으로 불렀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10도제 실시 당시 금강 이남을 강남도(江南道)라 한 것과도 관련짓기도 한다(이홍직, 1984, 1731). 그런데 이 주장은 금강을 호강으로 불렀다는 문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호남’이라는 지명을 중국에 있는 동일 지명을 모방해서 사용했을 가능성, 즉 중국지명이식설(中國地名移植說)이 있다.⁸⁾ 이 주장은 중국의 지명과 우리나라의 지명 가운데 그 표기가 동일한 것이 적지 않아 가끔 제기되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연구된 바는 없는 듯하다.

중국에도 호남(湖南)과 호북(湖北)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호’는 장강(長江) 중류의 거대한 습지에 자리한 동정호(洞庭湖)를 지칭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호남과 호북은 송나라 때(960~1279)에는 역로의 이름이었다가 청대(1616~1911)에는 지방행정구역인 성(省)의 이름으로 전용되었다(諸橋轍次, 1984, 卷七, 128-129).

중국의 호남성(湖南省)에는 전체적으로 산지와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다. 산지와 구릉지의 면적은 성(省)의 전체 면적인 21만km²의 80%이상을 차지한 반면에, 평야는 20%에도 못 미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호남지방의 지형구성과 크게 다른 것이다. 전남·북과 광주를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호남지방은 면적이 2만km²를 약간 상회하는데 임야는 55%안팎에 그친다. 그리고 중국의 호남성내의 주요 시·군명과 우리나라 호남지방의 시·군명이 일치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中國地圖出版社, 1992, 77-80). 때문에 ‘호남’이라는 별칭을 중국의 것을 차용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중국에서 ‘호남’이라는 지명이 지방행정구역제도와 관련해서 사용된 것은 17세기 이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6세기에 행정지명을 대신하는 별칭으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도 중국지명이식설에 의문을 품게 한다.

이렇게 ‘호남’의 ‘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

칭하는지 현재로서는 분명한 문헌적 출처, 즉 전거(典據)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문헌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단계에서는 '호'를 금강으로 보고 호남을 금강 이남으로 본 '금강이남설'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권혁재, 2003, 14). 왜냐하면 금강에는 강해(江海)나 피호(陂湖) 즉 '호'로 받아들여진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체로 금강 이남에 속하는 전남·북을 호남지방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리학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海西)'는 '경기해(만)의 서쪽'이라는(국역연려실기술 XI, 1977, 169; 최남선, 1937, 196)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여기에도 재검토해 보아야 할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고려의 성종대인 995년에 관내도에 들었던 황해도가 현종대인 1018년에 서해도로 개칭되는 것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해(西海)'는 일반적으로 '개성 또는 경기의 서쪽 바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서(西)'는 서하(西河)로 불렸던 풍주(豊州)를 지칭하고(북역고려사 제5책, 1991, 506), '해(海)'는 해주(海州)를 가르키는 것으로 보고, 두 도회지의 머릿글자를 따온 도명칭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당시에는 풍주와 해주가 황해도의 중심도회지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서해도는 조선왕조의 태조 연간에 풍해도(豊海道)로 바뀌었다가 이어 태종연간인 1417년에 황해도(黃海道)로 바뀌게 되는데, 풍주(서하, 풍천)를 황주가 대신하게 된 것이다. '해서(海西)'라는 별칭은 조선의 태종연간인 1406년에 처음 실록에 나타난다. 이것은 서해도를 풍해도로 개칭한 뒤에도 풍주의 별칭인 서하가 통용이 되고, 다른 도의 명칭에서는 관찰사영을 앞세워 도명칭을 정하는 관례에 따라 '해서'로 고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현재로는 하나의 추정에 불과하고 좀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선 8도' 자체를 지칭한 별칭은 아니지만 특정한 지방 즉 2~4개의 도(道)를 함께 지칭했던 별칭의 용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사용된 별칭 또는 이칭으로 황해도(해서)와 평안도(관서)를 아우르는 양서(兩西), 흔히 충청·전라·경상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

진 하삼도(下三道) 또는 삼남(三南), 강원·황해·평안·함경도를 묶어 표현한 상사도(上四道)가 있다. 이들 별칭을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해 본 결과 '양서(兩西)'는 「광해군일기」에서 최초로 보이며, 이후 현종 대까지 308회, 숙종~철종 대에는 238회가 확인되었다. 하삼도(下三道)는 조선의 「태조실록」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성종실록」(1392~1494)까지 433회가 나오고, 연산군~현종(1494~1674)까지의 실록에 364회로 빈번하게 나오다가 이후에는 「정조실록」에 단 3회만 보인다. 그런데 「태조실록」에서의 하삼도는 전라도·경상도와 양광도를 지칭하고 있다. 반면에 '삼남(三南)'은 「태조실록」~「성종실록」에서 찾아 볼 수 없고, 「선조실록」에서 용례가 처음 확인된다. 이후 「선조실록」~「현종실록」까지 221회, 「숙종실록」~「철종실록」까지 474회로 그 기록의 빈도가 조선 후기로 옮겨오면서 대단히 많아진다. 이것은 조선 중기 이전까지 통용되던 '하삼도'가 '삼남'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상사도(上四道)는 「태조실록」~「철종실록」(1392~1863)에 이르는 전기간에 단 3회만 보이는데 「선조실록」에서 최초로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행정명칭 이외에 각도(道)와 관련된 별칭이 오늘날 뿐 만 아니라 도제(道制)가 지방행정제도(地方行政制度)로 확고하게 시행되었던 조선시대에도 널리 통용되었다. 별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 8도'(정확하게는 경기와 7도)를 대신하는 기호·관동·호서·해서·호남·영남·관서·관북과 강원도의 동부와 서부를 지칭하는 영동·영서이다. 이 별칭들은 거의 전부 지형을 비롯한 자연지리적 요소에 그 기준을 두고 있어 도회지명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공식적인 8도명과 비교된다.

행정도의 별칭(別稱) 중에는 13~14세기의 문헌에 등장하는 것도 있으며, 15세기 후반부터는 도의 별칭 모두가 정착되어 통용된 것 같다. 별칭이 길게는 700년이 넘게, 짧은 것도 50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통용된 지방별칭은 지리적으로는 공식적인 행정지명

에 못지않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믿어진다. 오늘날 조선 8도와 일부 지방의 별칭은 그곳의 문화·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은연중에 지리적인 '지역구분'의 단위로 받아들여질 만큼 그 의미가 중요해졌다.

각 도의 별칭은 공식적인 도명(道名)과는 달리 그 유래나 의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헌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지리학계와 일반인들에게 흔히 소개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우선 관북·관서·관동의 '관(關)'과 영남, 영동, 영서의 '영(嶺)'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철령(또는 대관령)이나 조령과 죽령만을 지칭한다고 보기보다는 접경지대(변경지대)·군사상의 요충지가 많은 지방과 소백산맥·태백산맥 자체를 의미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호남·호서·기호의 '호(湖)'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금강과 의림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서며, 해서(海西)는 경기만의 서쪽이라는 의미와 함께 해주와 서하(풍천)의 머릿글자를 따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조선 8도'의 별칭은 거의 전부 산맥(고개)·하천·호수·바다 등의 자연지리적 요소, 특히 지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조선시대에 각 지방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연지리, 특히 지형에 기준을 두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지방행정 명칭은 이와는 다르게 각 도 관내의 핵심적인 도회지명, 즉 인문지리적 요소에 토대를 두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선 8도'의 공식적인 도명(道名)은 도명도회지명의 변천, 즉 인문지리적 요소의 변동에 따라 개칭되어 왔다. 반면에 8도의 별칭은 주로 지형을 토대로 정했기 때문에 지방별칭은 전혀 변동이 없이 오늘날까지도 지리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선 8도'를 대신해왔던 지방별칭은 상당기간 동안 일반에서 통용될 것으로 믿어진다. 만약 각 도의 명칭이나 인문지리적 요소에 바탕을 둔 행정개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지리적 요소에 토대를 둔 이 별칭은 계속해서 유용한 '지

역구분'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註

- 1) 지리학 용어로서의 '지방'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지리학계에 보고 된 바 있다(이호상, 2003). 이 보고는 용어사용에 비교적 관대했던 기존의 학계풍토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의 '지방'은 지역과 구별된다는 현대지리학적 용어가 아닌, 지역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지방'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8도의 별칭과 함께 쓰인 용례가 적지 않다. 근래에는 통계자료를 비롯한 각종 행정자료를 지리학적 연구에서도 자주 활용한다. 그런데 행정자료 중에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을 모두 '지방'으로 표현한 것도 없지는 않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행한 행정간행물에도 '지방'은 포함되기도 한다. 오늘날 '지방'은 행정용어 또는 법령용어의 하나로도 자리잡은 것 같다. 지리학어와 법령용어가 갖는 의미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왕의 보고가 있다(줄고, 2002c).
- 2) 權赫在, 2003, (제3판)韓國地理[總論], 法文社, 14-15.
- 3) 「고려사」는 북한번역본을 신서원 편집부(서울)에서 재편집한 「북한구역 고려사」를, 「조선왕조실록」은 서울시 시스템(주)의 CD-ROM조선왕조실록(국역, 증보판)을 이용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개인문집류 등의 문헌은 거의 전부 국역본을 참조했다.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본고 말미의 〈문헌〉에 정리해 두었다.
- 4) 범선규, 2002a, "高麗와 朝鮮의 道名稱과 地方의 別稱-지형과 도회지발달의 관점에서," 2002년도 정기학술대회(요약문)문화역사지리, 14(3), 97-99와 "高麗~朝鮮時代の 行政道名과 道名都會地," 문화역사지리, 15(2), 43-59.
- 5) 「고려사절요」 제4권, 문종인효대왕 6년(임진) 2월의 기사에 '관서(關西)·안북(安北) 두 도(道)가 흥년이므로 창고를 열어 구제해 주었다'는 기사가 보인다(국역고려사절요 I, 261) 참조.
- 6) 개인문집류에 올라있는 한시문(漢詩文) 중에는 제목에 지명 또는 지방별칭을 사용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시제(詩題)에 여러 개의 지명과 지방 별칭을 함께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신흠(申欽: 1566-1628)의 문집인 「상촌집」에는 "을미년(1595) 가을에 순안어사로 영북(嶺北)을 가면서 함관령(咸關嶺)을 넘어려던 차에 관동(關東)사람을 만나 강릉(江陵)의 신사군 경진에게 부치다"라는 긴 제목의 시가 있다(국역상촌집 I, 1997, 428 참조).
- 7) 오령(五嶺)은 태유령(太婁嶺)·시안령(始安嶺)·임하령(臨賀嶺)·계양령(桂陽嶺)·계양령(揭陽嶺)이다(諸橋徹次, 1984, 卷四, 312).
- 8)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1997년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정기학술대회(1997. 10. 11: 상명대)에서 "뉴질랜드 마오리 地名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토박이 땅이름의 地位"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던 윤흥기 교수의 구두발표에서 이러한 취지

의 언급을 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공식 출간된 이 발표의 요약문(문화역사지리, 10, 136-137)에서는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文獻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1972, 六堂崔南善 全集3(朝鮮常識, 1937), 玄岩社, 서울.

權赫在, 2003, 韓國地理(總論, 제3판), 法文社, 서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2, 지리사전(상), 평양.

內務部, 1976, 地方行政區域開發史, 서울.

_____, 1982, 地方行政地名史, 서울.

大東輿地圖, 韓國史學會 影印本(196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국역고려사절요(전5권).

_____, 1975, 국역담헌서(홍대용).

_____, 1981, 국역동국이상국집(이규보).

_____, 1971, 국역만기요람 II.

_____, 1978, 국역면암집(최익현).

_____, 1998, 국역불우헌집(정국인).

_____, 1977, 국역삼봉집(정도전).

_____, 1997, 국역상촌집(신흥).

_____, 1977, 국역서애집(유성룡).

_____, 1967, 국역성소부부고(허균).

_____, 1970-1980, 국역세조·성종·중종·명종·선조·인조실록(색인편).

민족문화추진회, 1969,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전7권).

_____, 1969,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전7권).

_____, 1995, 국역양촌집(권근).

_____, 1977, 국역연려실기술(이극익).

_____, 1980, 국역익재집(이제현).

민족문화추진회, 1996, 국역한수재집(권상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2, 국역세종장헌대왕실록 2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국역증보문헌비고 여지 고(전4권).

이익성(역), 1971, 국역택리지(이중환), 을유문화사.

박만규·나경수 편저, 1999,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출판부, 광주.

범선규, 2003, “高麗~朝鮮의 行政道名과 道名都會地,” 문화역사지리, 15(2), 43-59.

_____, 2002a, “고려와 조선의 도명칭과 지방의 별칭,” 문화역사지리, 14(3), 97-99.

_____, 2002b, “嶺東의 自然地理와 災害-수해와 산불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요약집, 101-106.

_____, 2002c, “法令과 自然地理 用語,” 한국지형학회지, 9(1), 15-35.

북역고려사(전11책), 신서원 편집부(1991), 서울.

뿌리깊은나무, 1987, 한국의 발견 강원도, 서울.

서울시스템(주), 1998, CD-ROM조선왕조실록(국역, 증보판).

孫禎睦, 1992,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 一志社, 서울.

윤사순 외, 1995, 기호학과의 철학사상,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대전.

李丙燾, 1964, “湖南文化의 背景,” 湖南文化研究, 2, 15-24, 전남대학교호남문화연구소, 광주.

李乙浩, 1964, “湖南文化의 概觀,” 湖南文化研究, 2, 1-14, 전남대학교호남문화연구소, 광주.

李鉉淙 編著, 1990, 東洋年表(改正增補版), 探求堂, 서울.

이호상, 2003, “지리학 용어로서의 ‘地方’에 관한 역사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38(2), 224-236.

李洪植, 1984, 國史大事典(新改訂增補版), 三榮出版社, 서울.

趙炳魯, 2002, 韓國驛制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과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전28권), 웅진출판주식회사, 서울.

한글학회, 1966~1986, 한국지명총람(전18권), 보진재, 서울.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발전사, 서울.

諸橋轍次, 1984, 大漢和辭典(全十三卷), 大修館書店, 東京.

中國地圖出版社, 1992, 中華人民共和國分省地圖集, 上海.

최초투고일 03. 07. 28
최종접수일 03. 10. 22